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9
Sep. 2018
Vol.6 No.9



- 주안에라이프
- 힐링캠프 KOREA
- 주안에 한글학교
- 목장 / 사역국 / 칼럼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지난 8월 30일 Angeles Crest Christian Camp 에서 열린 수련회에서 한어청년부 회원들이 그룹모임을 갖고 있다.

가슴을 열고 '만남과 소통'

■ 한어청년부 수련회 [하트시그널]

평소보다 더 바쁘고 힘든 월요일부터 시작해 금요일 퇴근시간 전까지 세상은 날 어떡하든 무너뜨리려 했다. 내 몸뚱아리는 세상이라는 장독 속에 피곤함에 절여져 수련회 가기 전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그것도 잠시, 같이 카풀로 가기로 했던 목원들과의 연락으로 잠시 느슨해졌던 정신을 챙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시그널'의 설레임을 안고 3박4일의 여정은 시작했다.

7:40PM, 우리 차 인원은 총 4명, 다들 서로를 배려하며 한곳으로 미리 한 차로 픽업해오거나, 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김밥을 손수 준비하기도하고, 목마를까봐 커피도 챙겨오고 시작부터 배려의 이쁨들을 뽑내었다.

청년들끼리의 장시간 운전 여행은 오래간만이라 그런지 느낌이 아주 좋았다. 흘러나오는 CCM / 찬송가/ 가요에 피곤함은 웃음과 함께 날아가 버렸고, 서로가 나누는 답소들은 많은 주제가 오가며 평소때보다 더 재미있던 시간이었던거 같다.

어두운 산길 속 이쪽 저쪽 턱이 많았지만, 두달 전 7월 21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수련회 장소 답사 탐으로 왔던 터라 나를 헛갈릴 수 있었는데, 곳곳에 보았던 장소들을 보며 안전하게 8:55PM에 도착 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벌써부터 선발대, 찬양팀 등등의 여러 리더분들이 셋팅부터 연습까지 모두 얼굴에 홍조를 띄며 각자 맡은바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였고, 열심히 각자의 최선을 다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6면에 계속> | 안세진 성도 |

■ 주안에라이프 개강

100여명 등록 '행복한 주안에라이프!'



120여분의 어르신학생들과 20여분의 강사님들, 아침과 점심으로 섬겨주실 20여명의 봉사자들과 스태프등, 150여명 이상의 거대한 주안에라이프가 힘차게 출발하였다.

지역사회에서의 소문대로 알찬강의내용과 "주안에밥상"으로 유명해진 주안에라이프 첫날은 바쁘고 분주하였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기쁨을 허그와 미소로 화답하며 모두 행복해하시니 봉사자들까지 덩달아 웃음이 그치지 않았다.

이번 학기에는 개강예배를 드린 후 첫번째 강의시간을 특별히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마련하여 각자 관심있는 클래스를 방문하

서 강사님들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강의과목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김경배 국장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여 주셨다.

아무 고민없이 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교회와 목사님, 모든 스태프들께 감사드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며 특히 운전이 어려워 외출도 힘든신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세심히 보살피, 픽업까지 해주신 주안에교회에 무한감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천고마비의 계절!!! 이가을에 행복한 학창 시절이 되시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은 기도드립니다.
| 임용자 기자 |



■ ICY Joint Worship

벨리 · MP채플 중고등부 함께 예배와 친교

벨리 채플과 MP채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평소 수요일과 금요일에 각 채플별로 나누어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9월 7일 금요일에 MP채플에서 ICY Joint Worship을 드렸습니다. 6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ICY 교역자들이 정성껏 준비하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지난여름 수련회 후 1달 만에 다시 만나 기쁨과 반가움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예배를 드렸는데 이요셉 전도사님의 인도로 찬양을 부를 때 넓은 MP 채플 ICY 예배실이 뜨거운 열기와 은혜로 가득 찼고 이 성우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모두가 진지하고 엄숙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한편 9월 22일 토요일에는 ICY 영화 야우팅이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계획한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김민재 전도사님의 준비와 인도로 모든 행사가 진행 되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활

동을 통하여 친교와 단합을 이루고 청소년기에 풍부한 소양을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 나형철 기자 |

■ 교우동정

저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전익성, 영옥 집사 9월 20일, 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 생일에 최고의 선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 첫 손녀 딸인 Aston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산모인 Annette이 건강하게 순산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랑스런 Aston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딸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성령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의 장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Amen.

밸리 목장 소풍 다녀왔습니다



9월 8일 토요일, 밸리채플 14목장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14일 목적지를 놓쳐 지나가다 우연히 실수로 들렀던 산타 바바라의 골레타 비치(Goleta beach). 좋았던 기억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리 멀지도 않은 차로 한시간 반 정도의 거리. 시원한 바닷바람. 백사장엔 별로(?) 이지만. 바닷가와 바로 맞닿아 있는 나무그늘... 바다를 뚫고 걷는 듯한 환상적인 pier 산책 코스....

당일 날씨가 화씨 100도가 넘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맞춰 센스쟁이 아내가. 번개소풍을 주선(?)했구요. 먹을 것 바리바리 싸 들고. 겸사겸사 바람도 쐬고 피서도 할 겸. 당일치기로, 시간이 가능한 목장식구들과 함께....

팔순이 넘으신 목장장 장로님 부부도 모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더 불러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이 땅과 바다...를 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 삶의 충전의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캐나다 로키서 영상앨범 촬영



윤성문 집사 성가대 총무 윤성문 집사님께서는 한국 KBS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영상앨범” 촬영을 위하여 한국에서 오신 출연진들을 모시고 캐나다 로키산맥으로 3주간 떠나셨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는 시원한 공기를 몰고 오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번엔 쌍둥이, 귀여운 손주가 모두 일곱이나...

이현보 집사, 이준 권사 성가대 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현보 집사님 가정에 큰 따님이 9월28일 아침 쌍둥이(손자와 손녀)를 출산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슬하에 아들 2명과 딸 2명이며 손자 손녀가 모두 7명이 됐습니다. 늘 성가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헌신의 모습으로 성가대 분위기를 따뜻하게 이끄시는 집사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 힐링캠프 KOREA 준비

“은혜의 말씀, 회복과 치유를 한국 땅에”



첫 사랑, 첫 자녀, 첫 손주 등등.. 우리 삶에서 '첫' 자가 주는 의미는 참으로 남다릅니다. 미국에서만 열렸던 주안에 힐링캠프가 드디어 1기 한국 힐링캠프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므로 지난 9월 9일 서포터즈의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약 80여명의 서포터즈가 모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였고, 이방길 총무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부서별 모임에서 기도까지 앞으로 세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낮시'의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1기 한국 힐링캠프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경숙 기자 |



최진선 집사 우리 주안예교회의 기둥이자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힐링 캠프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힐링 캠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서포터로 참여합니다. 이번 캠프에서도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참여하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캠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중성, 연희 집사 저는 아내인 연희 집사와 함께 힐링 캠프에 서포터로 참여합니다. 한국을 다녀온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 힐링 캠프를 계기로 모국 방문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장모님과 처제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이번에 시켜로 초대하였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전적으로 이분들의 영혼구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은 없고 이분들과 함께 지내며 이분들의 전도에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이번 캠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원순빈 권사 한국에서 힐링캠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서포터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힐링 캠프를 한국에서 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목사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였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조금 일찍 나가서 이분들을 직접 만나 캠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초대를 독려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희 권사 이번에 한국에서 힐링 캠프를 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구 한 사람이 불신자여서 늘 기도해왔는데 이번에 그 사람을 시켜로 초대하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도 초대하여 모두 두 명이 함께 갑니다. 이번에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남은 생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국에 사는 아들 내외와 손자를 오랜만에 만날 수 있게되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 힐링캠프 KOREA 준비

“믿지 않는 친척, 친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계순 권사 이번 한국 힐링캠프에 네 분을 시켜로 초대하였습니다. 형님과 형님의 언니, 그리고 오랜 친구 한 사람, 또 미국에 사는 지인인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초대하였더니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시켜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진리의 길을 가며, 잘못되어가는 한국 교계에 나비의 날개 짓 같은 바람을 불어넣어 나중에 큰 돌풍을 일

고용훈 집사, 하나 권사 저는 개인 사업 때문에 그동안 힐링캠프에 참가를 못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고나서 지난 봄에 시켜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는 제 신앙의 큰 이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다녀온 지도 24년이 되어서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 힐링 캠프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켜로 참여하여 받은 은혜를 이번에 한국에서 서포터로 참여하여 나눌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친지들과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교회에 다니며 받은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영 집사, 임혜신 권사 한국에서 힐링캠프가 열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초대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초대하지 못했던 한국의 여러분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한국 힐링캠프를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분들, 하나님을 잘 몰랐던 분들, 그리고 낙담하고 좌절가운데 있는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힐링캠프에 서포터로 참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항상 참여하기로 다짐하였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 모국 방문도 겸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에 친척의 결혼식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힐링캠프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강력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예스터 권사 한국의 힐링캠프에 서포터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과 건강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켜로 몇 분을 초대하였는데 모두 와서 큰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만난 분인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교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 길에 기독교 학교인 고등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자 권사 한국에 다녀온 지 10여 년이 되었는데 이번 힐링 캠프를 계기로 다시 방문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힐링캠프에 서포터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켜로 참여하였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 서포터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결심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한국 힐링캠프를 통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번에 많은 은혜와 힐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생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번 한국 방문은 힐링캠프를 위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일정은 없습니다.

이정의 권사, 지현 성도 이번 한국 힐링캠프에 딸과 함께 서포터로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사는 동생과 제부를 초대하였는데 아직 참여하겠다는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였지만 계속 설득을 하자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계속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국 힐링캠프가 성공적으로 잘 마쳐져서 앞으로 정례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어청년부 수련회 [하트시그널]



말씀 · 찬양으로 하나된 마음, 스릴넘치는 Zip-line

〈한어청년부 수련회 · 1면서 계속〉 찬양팀은 고웅일 목사님을 필두로 양양으로 우헤리 좌의연 & 좌윤기 포지션으로 반복에 반복을 하며 박자 하나까지 완벽을 위해 심취해 있었다. 영상 및 자막 음향 팀 또한 마지막 점검을 하며 곧 도착할 코람데오 및 영커플을 맞이할 준비를 맞춰갈 때즈음... 한두명씩 도착한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금요일 밤 수련회 첫날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많은 빈자리가 있었지만 시작되었고, 분위기는 서먹서먹 하였으며, 굳어있는 몸에 고웅일 목사님의 위트 있는 말과 함께 신나는 찬양이 시작되었다. 다들 굳어있던 몸을 풀고 세미나가 시작되고 있는 중에 뒤쪽에서 들리는 부스럭 소리에 도착 인원의 반가움을 도중에 다들 표현하며 좋아하였고, 그렇게 세미나는 3박4일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이성우 전도사님의 청년스러운 눈높이 세미나는 부드러웠고, 때론 슬픔과 안타까움에 목이 쉬어라 외치는 모습을 보며 지금 내 신앙의 상황을 확실히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련회 전부터 오랜시간 준비해 왔던 게임팀의 수고로 중간중간 재미있는 게임들과, 야외에서의 물놀이를 통해 각 조 팀원들의 평소 모습과 또 다른 열정적이고, 재치있고,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이번 수련회는 청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넉넉히 주었던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다. 남은 시간 동안 평소 쉽게 하지 못한 교회 밖에서의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길가)에서 걸려지지 않은 세상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닮아가는데 있어서 자주 방해받고 세상으로 시선을 빼앗기며 살았던 내 과거와, (돌짜발)속에서 깊이 않은 내 뿌리들이 공동체에서의 섬김들과 성경말씀같은 영양분들을 제대로 흡수 할 수 없었던 근래의 내 모습들을 잊고 살다가 이번에 깨달았다. 그러고는 결국은 (가시덤불) 속 같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고민들 염려속에서 허우적대며 세상속 재물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인생의 항락만을 찾으려 했던게 나의 꿈은 아니었는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진정한 (옥도밭)으로의 영양분 가득한 마음속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품고, 순종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배웠다. 다른 주제로 [용서]에 대해 배웠는데, 용서라함은 보내는 것이며, 멀리 떼어놓는 것이라 했다. 비록 내가 해를 입었다 하여, 상대를 용서치 아니한다면 결국은 내가 해임을 것을 사서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그 해임을 것을 불평불만하는 꼴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는 웬지 더욱 청년부를 위한, 청년스러운 수련회 같았던게 정말 청년들이 만들었다는게 많은 곳에서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성우 전도사님을 통하여 좋은 설교 말씀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림 자매가 마지막날 헤어지기 바로 전에 나눔 해주었듯이... 그누구보다 더 열심히 먼저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어서 정말 좋았고, 진짜 너무 좋았다. 중간중간에 응원차 오신 권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 받으시길 기도해본다.

주안에 가족을 소개합니다!

■ 새가족 소개

온실 속의 화초같은 제 기도와 믿음의 마침표를 찍으며...

저는 제 삶에 제 2의 전성기를 주안에 교회의 최혁 목사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가족모임을 통해 섬겨 주신 하나님의 손길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을 20대 초반에 와서 한 교회를 15년을 섬기며 그 곳에서 저는 온실속에 화초처럼 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듯 또한 내가 하는 모든일이 다 내 뜻대로 잘되는 것이 다 나이기 때문이라는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20,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일이든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의 교회, 가정, 직장생활까지도 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이 곧 하나님의 뜻인양 마음대로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두 아이에 엄마가 되면서, 제 자신으로 부터 보여지는 하나님과 우리 두 아이들의 하나님이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온실속에 화초였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속에는 나와 다른 순수한 하나님의 향한 작은 떨림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저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의 주심과 누림에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탄식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탓도 할 수 없는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하나님께 모든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저의 여러가지의 갈급함을 서두르지고 느리지도 않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주안에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년의 온실속의 화초였던 저를 이끄시어 저의 간절한 기도에 마침표를 찍듯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안에 교회'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함께 섬기며 순종하고 동행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최주디 집사(벨리) |



■ 벨리채플 이야기

새벽기도 후 함께 걷는 산책로, 삶의 활력이 넘쳐요

매일 새벽기도가 끝나면, 많은권사님들께서는 삼삼오오 짝을 이루시며 산책을 하신다.

교회건물의 오른쪽을 따라 계속 걸어내려가는 길에는 캐나다 단풍이 가을인사를 하고 있고, 길 끝에서 오른쪽을 따라가면 봄에는 불어난 저수지 물위로 이름모를 수십마리 새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있는 그들만의 세계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된다. 내려간 길 끝에서 왼쪽 길로 들어서면 울창한 숲으로 나무향이 싱그럽고, 나무 사이사이마다 햇살이 아름답게 비추어 더 건강해짐을 느낄 정도였다.

걸다가 다시 왼쪽으로 들어서면 오솔길이 나오고 조금 걸어가면 작은 자갈밭이 나오는데 그 한편에서는 시냇물에 손을 씻을만큼 졸졸 흐른다.

그곳에서 굴다리를 지나면 유명한 "Limekiln Canyon Trail"이 나오는데 소나무 숲속으로 걷고 걸으면 시냇물을 건널 수 있는 돌다리를 두개나 건너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새벽기도와 함께할 수 있는 대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주안에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이며, 하나님의나



라를 이루어갈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진 아름다운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이 감사를 드린다. | 임용자 기자 |

■ 사역국/목장 탐방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

차량국(밸리)

안수집사 회장 김재주 집사님께서 차량국장을 맡으신 후 안수집사회 사업계획으로 모든 회원들이 합심하여 차량국을 섬기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본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광조 집사님과 정진복 집사님께

서 버스 2대를 맡아 운행하시고, 오후에는 안수집사 전원이 교대로 당번을 짜서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을 교회에서 댁까지 모셔드리고 있으며,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 부모님 모시듯 섬기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 순종하며 보람을 느끼게 하셔서 더욱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버스안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마치 작은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기분을 느끼며 뿌듯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버스를 기다려 주셔야할 어르신이 늦게 나오시면 무슨일이 생겼을까 걱정이 앞서고, 늦어서 미안한 모습으로 달려 나오시는 모습을 볼때면 기쁘고 반갑고... 우리는 이미 한가족이란 감동을 갖게 되기도 한답니다.

주일날이 되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이 교회에 계시고, 버스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반가움과 고마움의 모습들이 모여지고, 섬김과 충성을 다짐하는 안수집사님들이 함께 삼박자 조화를 이룬곳이 바로 어르신들에 따뜻한 지상천국이시요.

충성하는 안수집사회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앞으로 주안에 교회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랑스런 기동들이 되실 것을 믿고 응원합니다.

| 김신실 기자 |

사랑이 듬뿍 담긴 '사랑표 밀반찬'



돌봄국(MP)

신약성경에서 한 사람이 모든 율법중에 어떤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22:34-40)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안에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두 계명을 따라 사역하시는 MP 돌봄사역국을 소개하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MP돌봄 사역국에는 이정희, 김옥희, 김창욱, 원순빈 권사님께서 매 주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4가지의 반찬을 맛있게 요리해 주십니다. 이정희 국장님은 몇 일에 걸쳐 여러 곳의 마켈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시는 것은 물론 긴 시간이 걸리는 밀반찬은 혼자 만들어 댁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네 분이 주안의 지체로써 서로 도와 만들어진 4가지의 반찬은 후집하면서 먹음직스럽게 용기에 담겨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계신 MP 돌봄사역국에게 마르다처럼 섬기는 자만 누리는 희락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 박경숙 기자 |

젊고 활기차게 '주님의 용사' 되어 솔선수범

안진호 집사님, 안희성 권사님부부가 섬기고 있는 10목장은 비교적 젊은10가정으로 구성되어있고 ICY와 IC Kids의 자녀들만도 16명이나 됩니다. 사실 장로님이나, 권사님등 교회에 리더쉽 없이 목자를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희생과 섬김에 분을 보이는 안집사님 부부는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계시며 매일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늘 자기자리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은 온 교인에 교감이 되어지기에 고맙기까지 합니다.

젊은 목원들이 모이는 만큼 집에서 모이기보다는 교회나 야외에서 모여야 신이난다고 하십니다. 부모님 방문, 아이들과의 휴가, 개인사정 등으로 목장모임이 다함께 모이는 힘들지만 중요한건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걱정치 않다고 하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맞춰 있는듯, 없는듯, 부역봉사를 하고 주일목장이 끝나면 청소를 해주고, 오히려 목자부부가 목원들을 보며 말없이 섬김을 베푼다는 행복한 목장입니다. 젊은만큼 할일도 많은 목원들을 이해하며 주님이 흡족해 하실 10목장을 기대해보며 10목장에 애창곡 "최후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



난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10목장 가족 모두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용사로 사용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누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10목장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 임용자 기자 |

■ 한어청년부 새가족팀 훈련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9월 27일 저녁 7시에 코람데오 한어청년부의 새가족팀 훈련이 MP채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새가족팀들을 위해 준비된 이 자리에 목자들과 작은 목자들이 함께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간단한 저녁식사를 한 후, 찬양과 기도로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이날은 훈련의 첫째 순서로 새가족팀원으로써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성우 전도사는 '섬김이의 정체성'과 '실질적인 섬김이의 역할'에 대해 성경말씀을 통해 자세히 풀어주었고 코람데오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한 몸이기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며,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김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말씀이 동반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도록 해야 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새가족팀에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각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영혼에 대한 마음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훈련은 주일 목장모임 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고, 새가족 팀장과 부팀장 및 팀원들의 역할과 태도, 주일사역 메뉴얼, 바나바의 역할 등 실제적인 사역의 부분들을 코람데오의 간사들이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새가족들을 유형별로 어떻게 대하고 케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룹별로 토의하고 나누며 실제적인 새가족팀의 역할을 연습하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안에교회에 오는 새로운 청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도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랑남치는 코람데오 새가족팀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문화를 가르칩시다



■ 주안에 한글학교 개강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안에 한글학교가 드디어 9월 29일(토) 벨리, MP채플에서 30여명의 학생들과 교사, 도우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뿌리교육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들에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한글공부는 물론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주안에 한글학교를 소개해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안에 한글학교 학생모집

- *언제: 오전 9:30- 오후 12:30(토)
- *어디서: 주안에교회 벨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 *누가: 4세 - 13세(8학년)
- *등록비(첫 학기 할인혜택): 첫째- 100불, 둘째- 80불(할인)
- *문의: 213- 675- 7816 (이니콜 전도사)

| 박경숙 기자 |



■ 믿음의 글 / 김형석(연세대 명예교수)

권력과 명예 다 짊어지고 갈건가

내 친구 B 교수가 강연 청탁을 받고 ‘인생은 공수래공수거인가?’ 라는 제목을 걸었더니 젊은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 교수가 8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다. 나도 문상을 갔다가 ‘정말 빈손으로 갔는가?’ 하고 물어본 일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빈손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어떤 사람이 빈손으로 가는가? 인생을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영역과 한계를 신체적 범위 안에서 마감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알면서도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문제다. 어떤 사람인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나를 위한 소유에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어떻게 소유하는가’가 인생의 전부이거나 목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맞을 때에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동물들은 본능적 욕망은 있으나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정신적 욕망까지도 동반하기 때문에 소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이가 있다. 그 결과는 명백하다. 내 신체의 종말과 더불어 빈손으로 가게 된다.

돈과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자랑스러울 정도로 치부했다고 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돈이 생기면 그에 뒤따르는 또 다른 소유욕이 생긴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크고 작은 권력의 소유욕에서 벗어난 사람은 많지 않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할 때 상하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갑(甲)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나 을(乙)은 고통과 불행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유가 인생의 전부이거나 목적이 되었을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된다.

정신적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도 물질이 아닌 명예욕의 노예가 되면, 그 명예를 소유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명성, 인기, 명예가 삶의 목표가 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 방법까지 가리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빈손으로 가게 된다. 명예를 탐내다가 치욕스럽게 생을 끝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가 같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 길이 있다면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간의 더 값있는 삶과 인격을 위한 수단과 부수적 가치에 속하는 것이지 인생의 전부도 아니며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은 차원 높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찾아 누려야 한다.

재물도 그렇다. 나를 위해서는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이웃과 사회에 베풀 수 있을 때 경제적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권력의 가치와 목적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모르는 지도자 때문에 사회는 불행해지며,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권력은 봉사와 섬김을 위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사회도 병들게 되는 사례를 어디서나 보고 있다.

명예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참다운 명예는 많은 사람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대가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안겨주는 정신적 선물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다 같이 빈손으로 왔으나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남겨주는 희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이들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은가?

■ 미니 인터뷰 / 박찬경 집사(MP)



색소폰 접한지 21년 찬양의 힐링이 기쁨

-집사님께서 언제부터 색소폰을 접하게 되셨는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 대학에서도 전공을 했고 오늘날까지 21년째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주안예교회에 오시게 되셨는지요?

목사님께서 사랑의빛선교교회에 계시던 7년전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받던 중 지난 4월에 등록과 동시에 힐링캠프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찬양사역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게된 동기가 있으시다면?

다른 찬양팀들은 악보대로 연주하는데 비해 제 경우는 기도할 때나 찬양이 끝날 때 멜로디를 직접 만들어 즉흥연주로 은혜를 끼치고 싶었습니다.

-찬양으로 섬기시면서 가장 보람된 기억이 있으시다면?

성도님들께서 힐링되고 회복되었다고 기뻐하실 때입니다.

-연주할 수 있는 다른 악기들이 있다면 어떤 악기 일까요?

기타, 키보드, 피아노, 드럼, 클라리넷, 우크렐레, 오카리나 등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찬양사역하시면서 꿈이 있다면? 혹은 바라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찬양팀 안에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칠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임용자 기자 |

■ 숨은 일꾼 / 이용화 권사(백리)



한코 한코 사랑의 뜨개질

언제나 이층 한곳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자리를 지키시는 이용화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권사님은 언제나 덕담으로 남을 배려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넉넉하고도 평안한 친근감을 주는 분입니다. 권사님은 실과 바늘만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듯 십자가를 천개 이상 만들었고 또 목도리, 모자, 무릎담개, 산타부부, 등등을 만들어서 양로원, 영성 세미나, 노인대학, 구역식구,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고 계십니다.



내것은 모두 귀하고도 아까운 것으로 알고 지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나누며 살다보니, 더 많은 기쁨과 감사제목으로 채워짐을 경험하셨고 또 칠순이 넘어서 대장암 수술 후 회복기간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손으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겉잡을수 없이 빨리 발전하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은 권사님은 “도르가(다비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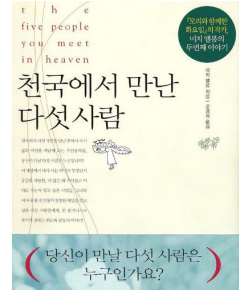
한바늘씩 실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쁨들도, 권사님을 바라보는 후배들과 함께 나누면서 많은 도전을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 김신실 기자 |

■ 추천도서/ 천국에서 만난 다섯사람 [미치 엘벌]

내가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랜 삶을 살다 보면 그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책은 특히 신앙을 갖고 하나의 신앙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과 얼마나 중요한 관련이 있는지 일깨워주는 신앙인 필독서입니다.



우리와 다름 바 없는, 에디라는 평범한 놀이공원 수리공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우연한 행위란 없다는 것, 우리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안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난 주일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다거나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기 싫다며 합리화 합니다.” 또는 여러모임이나 봉사, 단기선교등 참석을 권유하면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다는등 회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살고 있고 또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늘 힘을 합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나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에서 각각의 상황을 다루고 설명합니다. 희생은 후회할 것이 아니라 열망을 가질만한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 전 설교 말씀 중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다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을 겪어도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현대의 물질문명 사회에서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나를 이끌고 갈 때 마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며 자주자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광영 기자 |

■ 교우비즈니스 안내

SEONG UN JOE

VIJA TRAFFIC SCHOOL 비자운전학교

213-739-8181

vijasj@gmail.com

4157 W. 5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JINNY NOH PIANO STUDIO

노현순 피아노 개인 지도
(818) 438-9359/ jinnynoh1@gmail.com

Member of MTAC(Music Teacher Association of California) & SYMF(Southern California Youth Music Festival)

Master Car Auto Body Shop

Danny Lee (이원근)

5801 S. Central Ave #H
Los Angeles, CA 90011

wonkni@gmail.com
(213) 703 - 0777

보험수리, 리스리턴,
렌트카, 토일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궁금증 물어보세요(6)

지난 시간들에서 설명해드린 Calfeesh 혜택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조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해 드린 SSI이외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 California 주에서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CalWORKs 프로그램과 주정부가 제공하는 GR 프로그램, 이 두가지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두가지 프로그램은 단기적 혜택이며 이를 받는 수혜자들은 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교육과정과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기간은 몇달 동안 계속 될수 있으며 교육이 끝나고 취업 능력이 평가되면 지정하는 직장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훈련을 받기위해 지출되는 경비, 즉 자녀들의 위탁(day care)경비, 교통비용, 훈련유니폼등을 제공합니다.

위의 두가지 혜택에 대하여 몇번에 걸쳐서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lWORKs: 이는 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

Calworks

< 현금 보조 혜택 >

노재덕 집사
(SSA 근무)



sponsability to Kids의 약자로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보조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가족중에 있어야 하며 부모가 실직 상태이거나 혹은 부모중 한사람이 주 25시간이하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혜택 액수는 4인 가족 최고 매달 \$852까지 받을수 있으며 가족수가 많을수록 받을수 있는 혜택액수가 올라갑니다.

이 CalWORKs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질수 있는

데 이들은 위에 설명해드린 직업 알선 외에 자녀 Day Care, 강제로 거주지에서 퇴거되었을 경우 임시 거주지 비용, 이사 비용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는 육체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 그리고 언어의 폭력도 포함됩니다)의 경우 여러가지 혜택과 법적 보호 그리고 비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의 이런 정부 기관에 의뢰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9: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안에” 2018년 10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수, 박창신, 박희정, 이광영, 이에스더, 임용자, 조성은, 조용대(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운영